

신암 제138호 / 발행일 : 2022년 1월 30일

신암회보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요4:23~24)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5~21절)



CONTENTS

02 성구

04 담임목사 칼럼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06 특집기획

2022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목자의 우물가

아브람 삶 속의 하나님

- 황정기 목사

17 2022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릴레이

김두리 목사, 김성국 장로

박진옥 권사, 김정환 집사

서혜진 집사, 마하나임 윤정환

중등부 백승이, 아동부 정윤찬



18



28



26

11 신임교역자 소개

우리의 사قم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김성호 목사

복음의 향기가 솔솔~

- 김은비 전도사

13 은퇴 직원 인터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 장태식 은퇴장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 최호영 은퇴안수집사

감사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 이동봉 은퇴권사

16 신임서리집사 인터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 이은옥 신임서리집사

19 신암가족 사업장 소개

23 책 집사

한 말씀만 하소서

25 교회 소식(Photo News)

27 2022년 2월~4월

교회 행사안내

28 선교지 소식

우간다 - 윤재승 · 조은숙 선교사

30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 퍼즐

31 새가족 소개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올 해 우리 대구신암교회의 표어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무너진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배 회복’ 과 ‘부흥’ 에 초점을 맞춰 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마침내 영적인 기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 그녀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2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4:23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으신다’ 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요구한다’ ‘원한다’ 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요4:24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프뉴마’ 인데 인간의 통찰력과 의지/감정의 원천이 되는 ‘마음’ 과 사람의 내적 생활의 기준이 되는 ‘정신’ 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인데 그 뜻은 ‘참된’ ‘정직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알레테스’ 에서 유래한 말로 ‘절대적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진리’ ‘사상적인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다 동원하고 깊은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줄면서 예배를 드렸던 유두고와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서 장사 이운을 쳤었던 타락한 종교지도자들과 탐욕스런 상인들의 마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뢰아 사람들처럼 받은 말씀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에 보면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들을 나열하면서 예배와 관련해 죽은 예배의 3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둘째, 보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 셋째,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예배입니다. 진정 부흥을 갈망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형식적인 예배 대신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편적인 메시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예배 대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7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

었느니라” 하십니다. 또 같은 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피조물로서 가장 근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 섬김’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C.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년)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고,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깊이 되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잠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예배를 올 한해 온전히 회복해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적으로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배관련]

1.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잃은양 찾기) 상·하반기로 2번 시행합니다.
 - 상반기는 교구별 총동원주일로 부활절(4월 17일)에 시행합니다.
 - 하반기는 구역별 총동원주일로 추수감사주일(11월 20일)에 시행합니다.
2. 5월을 가정 예배 회복의 달로 시행합니다.
3. 사순절에 신약성경 통독회를 새벽 예배때 진행합니다.
 - 기간 : 3월 2일(수)~4월 9일(토)
4. 총회 방침에 따라 유아세례교인도 성찬에 참여 합니다.(아동, 청소년 포함)
5. 새벽기도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항존직 및 교인 자녀와 함께 하는 토요새벽기도회'로 진행합니다.(예배 후 담임목사 자녀 축복기도 실시)
 - 시간 : 오전 6시
 - 설교 : 담임목사
6. 금요성령집회를 오후 7:30~9:00로 시간을 조정해 진행합니다.
7. 예배 헌금송을 찬송가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으로 변경합니다.
8. 파송찬양은 '부흥'을 그대로 합니다.

[전도/선교관련]

1. 이안 센트럴D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초청 공연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2. 이안 센트럴D 아파트 전담 전도팀 구성을 전도선교부에 위임합니다.

[봉사/친교관련]

1. 국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그룹 모임을 재개합니다.
2. 아름다운 신앙 수련회를 10월 6일(목)에 시행합니다.
3. 송페스티벌을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시행합니다.
 - ※단, 위의 행사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양육관련]

1. 제4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9월 1일(목)~10월 31일(주일) 2달간 실시합니다.
2.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을 재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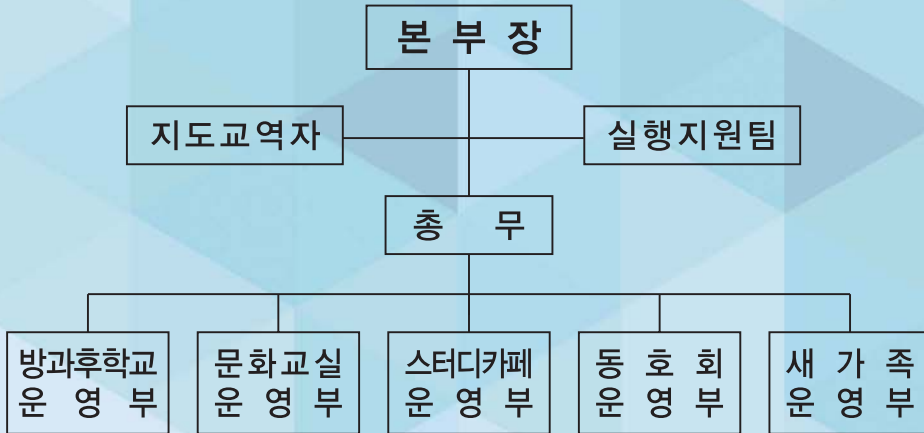
[기관/부서관련]

1. 새가족 예배를 다음과 같이 특화하여 실시합니다.
가. 시간 : 오전 11:00~12:00
나. 장소 : 푸른초장
다. 설교 : 담당교역자
※이 시간 푸른초장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다른 장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아름다운학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며 교육장소는 교회에서 장소만 무상대여합니다.
3. 소망부는 1년 더 연장하여 휴회합니다.

2022년 자치회 회의장소

구분	회의명	조직 구성원	모임 일자	시 간	장 소
교회	당 회	당 회 원	매 월 셋째주	오후예배후	당 회 실
	제 직 회	제 직 회 원	홀수달 첫째주	오후예배후	대 예 배 실
원로회	사 라 회	83세 이상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중보기도실(대)
여 전 도 회	제1여전도회	79~82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중보기도실(소)
	제2여전도회	75~78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30	중 예 배 실
	제3여전도회	70~74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소 예 배 실
	제4여전도회	65~69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30	중 예 배 실
	제5여전도회	60~64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소 예 배 실
	제6여전도회	55~59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베들레헬실
	제7여전도회	50~54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00	코이노니아실
	제8여전도회	45~49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베들레헬실
	제9여전도회	40~44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중보기도실(소)
	제10여전도회	39세 이하	매 월 첫째주	오후 1:30	자 모 실(좌)
원로회	아브라함회	76세 이상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가 나 안 실
남 선 교 회	제1남선교회	71~75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가 나 안 실
	제2남선교회	66~70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예루살렘실
	제3남선교회	61~65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예루살렘실
	제4남선교회	56~60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두란노실
	제5남선교회	51~55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자 모 실 (우)
	제6남선교회	46~50세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베다니실
	제7남선교회	45세 이하	매 월 첫째주	오후 12:30	갈릴리실
전문	교육자선교회	교 육 자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갈릴리실
	새바위선교회	실 업 인	매 월 셋째주	오후 12:30	두란노실
기 타	안수집사회	안 수 집 사	짝수달 셋째주	오후 12:30	중 예 배 실
	권 사 회	권 사	홀수달 셋째주	오후예배후	중 예 배 실
	안 나 회	은 퇴 권 사	매 월 첫째주	오후 1:00	베데스다실

제2부흥을 위한 운동본부



○본부장 : 곽승기 담임목사

○실행지원팀 : (팀장) 서재기 장로

(위원) 이기진 장로, 장원덕 장로, 석상철 장로
구영모 장로, 김성국 장로, 이대열 장로
이은우 장로, 김태종 장로, 이구석 장로

○총무 : 이재순 안수집사
(안수집사회 회장)

○지도교역자 : 황정기 목사
(행정목사)

○방과후학교 운영부(교육위원회)

(부장) 김국섭 안수집사 (총무) 이재운 안수집사 (고문) 김성국 장로

○문화교실 운영부(선교위원회)

(부장) 허병철 안수집사 (총무) 서경희 권사 (고문) 이대열 장로

○스터디카페 운영부(봉사위원회)

(부장) 이장희 안수집사 (총무) 최원숙 권사 (고문) 이은우 장로

○동호회 운영부(친교위원회)

(부장) 서철호 안수집사 (총무) 최진혁 안수집사 (고문) 김태종 장로

○새가족 운영부(양육위원회)

(부장) 박송규 안수집사 (총무) 김덕희 안수집사 (고문) 장원덕 장로



황 정 기 목사
(3교구장)

아브람 삶 속의 하나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거하던 땅을 나왔습니다. 이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람과 롯의 가산이 많아지고 가축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롯과 헤어질 때 선택한 길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황폐한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람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13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돌라오멜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돌라오멜은 그를 따르는 왕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배반한 나라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많은 것들을 약탈당하였습니다. 그중에 백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에게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서 도망친 이가 아브람에게 와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아브람은 그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시킨 전사 318명과 동맹인 아넬, 에스골, 마르레 부족과 함께 롯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단에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 곳에서 동맹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브람은 적들의 손에서 구출한 조카 롯과 자신의 동맹들과 함께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 소돔왕과 멜기세덱(살렘왕)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람은 물론이고 그의 동맹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람의 용사와 동맹들의 용사들을 합하면 약 천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인원으로도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람과 동맹군을 위하여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멜기세덱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아브람과 그의 동맹들을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그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전쟁으로 지쳐있고 피곤한 병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선물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과 동시에 그 전쟁이 아브람이 승리로 이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끈 전쟁이라는 것을 아브람에게 다시 새겨주었습니다. 아마 어깨를 으쓱하고 목에 힘을 주고 소돔으로 향하던 아브람은 멜기세덱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두 가지 선물은 아브람을 기쁘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전리품은 분명 자신의 동맹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그것을 일깨워 준 멜기세덱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십분의 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자신 및 자신의 나라가 처한 어려움에서부터 구해주고 심지어 평화까지 가지고 온 아브람에게 감사의 표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와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여 전쟁에서 얻은 사람과 물품 중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보내주고 그 물품은 당신이 하시오” 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브람은 “소돔왕이여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은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의 부유해짐이 소돔왕 때문에 부유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당신의 물품 중 실한오라기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다만 내가 전쟁 중에 사용한 식량, 내가 돌아갈 때 쓸 식량과 나의 동맹들의 몫만은 챙겨 가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소돔왕은 분명 아브람과 그의 동맹들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사람은 보내고 물건은 가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우습게 치부할 정도의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반란국들과 전쟁으로 획득한 그돌라오멜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당시 부자라고 할 만한 아브람이 가진 재산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전리품을 원래 본 주인이었던 소돔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브람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

였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사용한 식량과 돌아갈 때 먹을 식량을 요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자신과 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병하여 전쟁에 동참해 준 동맹들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신앙을 가진 동맹들에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챙김으로 아브람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과 물질이 대립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신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은 나의 열심과는 다르게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을 겨우 채우고 나와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심적으로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유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등지고 전쟁의 전리품을 포기하고, 동맹들을 위하여 몫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건 빠르게 포기하고 챙겨야 할 건 힘들어도 챙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산 아브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만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람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따라 걸어감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안녕하세요. 대구신암교회에 새로 부임한 김성호 목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는 요한1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임지를 두고 구했던 한 가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이 있는 곳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대구라는 낯선 땅으로 저희 가정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구신암교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랑하기는 쉽겠지만 처음 마음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건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만 나와도 200명이나 나왔대! 라고 말했지만 요새는 몇천 명 나오는 게 별거 아니라는 듯 여기는 걸 보면서 사람의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절감하고 있고, 저 역시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대구신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제가 조금이나마 쓰임 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모두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모두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손에 손을 모아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 성 호 목사
(2교구장)

복음의 향기가 솔솔~



김 은 비 전도사
(유치부)

살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부터 ‘복음의 향기가 솔솔~’이라는 주제로 유치부를 섬기게 된 김은비 전도사라고 합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저에게 교회라는 곳은 집과 같은 공간입니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란 저에게 교회는 항상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친구들에게 저와 같은 경험을 심어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신나는 찬양이 늘 들리고 재미있는 말씀으로 가득한 공간, 그런 유치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저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성도님들의 기도,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함을 잘 알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다년간의 유치부 사역 경험과 유아교육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갈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저에게 교회는 집과 같은 공간이었으나, 한편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할 것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목회자 가정인 것이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힘들을 아시고 절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이해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는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장 태 식 은퇴장로
(3교구 상인1구역)

2021년 12월 26일, 은퇴식을 마치고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1978년 대구신암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4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즐겁고 기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우리 신암의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특히 절기 칸타타를 발표한 것과 초대 사랑부를 섬긴 것은 참으로 행복했던 기억으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의 임마누엘 유치원 개원예배 참석, 중국 통밍(곤명) 차디엔 대구신암교회 2곳의 헌당예배(감격!!), 미얀마 선교지 방문 등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리에 저를 많이 인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몇 백 배, 몇 천 배 사랑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2004년 안수집사 피택교육시 필독서로 읽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제 믿음 생활에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답은 쉽게 얻어짐을 많은 경험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교회를 섬길 때 나 자신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자보다 부족한 자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제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대한 담임목사님을 섬겨라.

둘째, 헌금생활에 하나님앞에 떳떳하라.

셋째,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입니다.

그동안 저의 융통성 없는 성격과 부족한 말재주 탓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도 있리라 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향존직으로는 은퇴를 했지만 앞으로 믿음의 선배님들과 친구들을 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암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최 호 영 은퇴안수집사
(1교구 신암1구역)

저는 17년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은퇴식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올라온 등산을 마치고 이제 모든 직분 내려놓고 하산한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 속절없이 지난 세월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수집사로서만이 아니라 대구신암교회 관리 집사의 직분을 맡아 은퇴할때까지 근무하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교회 일 하는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 너그러이 용납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 가정에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위로, 성도님들의 성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이사야 말씀에 “그는 외치치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평온하고 부흥해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나이에 굽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 은퇴식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항존 직분은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갈 때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친교, 구제 사역 등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대구신암교회의 미래에 꿈이 있습니다. 제2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며 협력하여 그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감사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이 동 봉 은퇴권사
(2교구 안심3구역)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의 고향 교회에서 10년간 장로의 며느리로 신앙생활을 했고, 영천에서도 3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대구신암 교회에는 1985년 11월 첫째 주 당시 부교역자이셨던 김주섭 전도사님 권유로 등록을 하고, 1986년 1월 서리집사 임명과 함께 교사, 권찰, 전도대로 부름을 받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베델성서대학, 부부성경공부 등 여러가지 성경공부를 한 것과 한울중창단 활동을 통해 주일 1부 찬양을 드린 것, 소록도 나환자 위로행사 때 받은 은혜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 성도님들(고 김재일 장로님, 임상교, 전의학, 전원희 권사님 등)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고 김광덕 장로님이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저도 권사로 임직하여 22년 8개월 동안 은사를 활용해 봉사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부장, 전도대장, 상록대학교장 등의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봉사들을 함께 한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를 섬기면서 동노회 여전도연합회 회장, 전국연합회에서도 부회장의 자리에까지 세워지게 되었으며, 교단총회 초청 총대, 총회 노년부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연수를 받는 행운도 누렸고, 초교파 사역으로 극동방송 여성금식기도회 대표대회장의 기회까지 받았으니 이러한 활동들이 저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은퇴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차곡차곡 준비할 시기라 생각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배 권사님들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젊고, 용기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일을 맡길 때, 감사하며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신앙적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5년 대구신암교회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NTERVIEW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 은 옥 신임서리집사
(3교구 부부2구역)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리집사로 임명 받은 이은옥입니다.
부모님(이중준 안수집사, 이동숙 권사)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7살 무렵 대구신암교회를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청년이 되어서는 담당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고서는, 다시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김하나, 하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에 집사라는 직분을 제안받았을 땐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개인 신앙생활 잘 하고 여력이 되면 봉사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구 담당목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하니 부모님이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봉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래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집사가 되어도 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면 ‘집사가 뭐 별거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임 서리집사 교육과정을 거치며 제가 생각했던 집사의 직분이 결코 가볍지도,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으로서 거부할 수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사의 임무인 공궐(섬김)을 실천하는 일이 단순히 교회에 필요한 곳에 손이 되어주는 것을 넘어서 목회자의 임무를 잘 감당 하도록 보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며 집사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일꾼 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자란 제가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 잘 섬기면서 그 분들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 계승자이자 상속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릴레이



김두리 목사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올 해도 여전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김성국 장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앙망하며 모든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 사회적인 질곡으로부터 놓임되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2022년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박진옥 권사



시편 30편 11~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2022년 우리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도 가정과 일터,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리라고 고백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김정환 집사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올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지 벌써 3년차입니다. 힘든 것 투성인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서혜진 집사



마하나임 윤정환



시편 4편 7~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내 의식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1장 24~25절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중학교에 입학하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중학교 생활하여 저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중등부 백송이



아동부 정윤찬



시편 34편 9~10절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할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째 이어진 코로나재해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대구신암교회 교인사업장을 소개합니다. 시간내셔서 방문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화시장 편)

만나국집

정영애 권사 (010-2881-8939)

동구 아양로 53-12

신암동 일대에 소문난 국집으로 11년째 영업 중, 하루종일 추위에 시달린 분들은 이 집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하시네요. 입안 가득 칼칼한 선지국, 속까지 시원한 고디국, 몸 구석 뜨끈하게 채워주는 추어탕이 이 집 대표 메뉴라네요. 단체로 산행가시는 분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못 잊으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는 국 전문점입니다. 부모님 찾아뵈실 때 국 챙겨주시는 것 강추입니다. 신암가족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행복반찬

김순자 권사 (010-6645-5558)

동구 아양로 53-12

겨울 감기로 입맛이 떨어지셨거나 지금 드시고 계신 반찬이 맘에 안드신 분들! 주목~

대구 전역에서 찾아오는 반찬맛집 행복반찬입니다. 반찬집 반찬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집 도라지무침, 코다리찜, 김치는 진짜 예술입니다. 20년째 찾아오는 단골, 엄마손맛 그리워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입맛 다시지만 마시고, 얼릉 반찬 주문하세요.



꿀꿀이식당

신승옥 권사 (010-3215-8293)

동구 아양로 53-8

미슐랭 점수를 매기는 권한이 있다면, 이 집 돼지국밥, 순대는 ☆☆☆☆☆(별5개)을 주고 싶은 맛집입니다.

돼지 특유의 누룩내가 싫어서 돼지국밥 못 드시는 분들, 아니면 신선한 순대 제대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특히 순대는 27년 내공으로 매일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소진되어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밥 성지순례하시는 분들이 이 집 빼놓으시면 후회하실겁니다. 주차는 동대구시장 공용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야채판매

권주옥 집사 (010-8121-6642)

동구 아양로 53-13

평화시장에서 식사하시고, 그냥 가신다구요?

NoNoNo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야채 장보고 가져야죠. 집사님 깨끗하게 손질해두신 제철 야채 너무 좋습니다. 요즘 냉이와 봄동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냉이된장에 봄동전이면 밥이 서말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집에서 장봐서 가시면 아내한테 절대 혼나지 않을 겁니다.



카페헤어

이신옥 집사 (010-4444-9490)

동구 아양로 53-12

“그 어떤 손상된 머리라도 관리됩니다”
22년 경력 헤어디자이너의 말이 무한신뢰가 됩니다.

이전 개업 두 달도 안되었는데, 두피케어, 탈모
케어, 손상모케어 예약이 밀려오고 있다네요.

혼자 너무 바빠서서 네일케어까지는 서비스
안된다고 하시던데, 샅인샅하실 분은 집사님께
연락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찬양도
듣고 복음도 접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바램대로 기도해 주실거죠?



명동의류

백순열 집사 (010-2807-5929)

동구 신암동 798-5

13년 째 등산복, 정장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집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정정하게 매장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고객이 줄어서
하루 개시도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십니다.

“세상 달라지는데 뭐 무슨 재간이 있나? 매장
앞 플라타너스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수 밖에
없지. 그래도 감사해 지금껏 헤쳐나올 수 있어서”

재개발 계획으로 가게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계절에 맞춰 싹을 틔울
준비하는 나무와 같이 느껴집니다. 집사님 건강
하게 오래오래 장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핏어핏

김주은 성도 (010-2417-8249)

북구 대천로9길 30

“케이크가 너무 이뻐요 우리 애 생일 때 주문해도 되나요?”

“이 케이크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케이크입니다”

핏어핏은 단미사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수제간식,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듯, 섬세한 데코레이션하고 있는 김주은 자매의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전 메뉴 성분등록을 거친 무방부제, 무색소, 무합성 첨가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집 귀여운 댕댕이 생일이나 친한 댕댕이를 위한 선물로 활용해보세요. 3일 전에 주문해 주셔야 필요한 날짜에 맞추어 제작해 드릴 수 있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세부JK어학원

우성덕 집사 (010-7282-1045)

“Do you speak english?”

자신있게 “Yes, I can!”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영어 잘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싶으신 학부모님은 주목해 주세요.

세부JK어학원은 화상영어 수업전문 어학원으로 원어민 1:1 수업, 한국선생님 1: N그룹으로 수업 진행되며, 매일 25분 주 5회/주 3회/주 2회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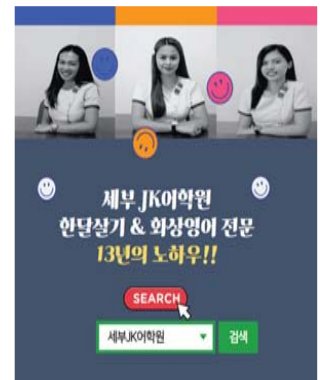
“아이 학교 영어교재로 수업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옥스퍼드 교재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하지만, 원하시는 교재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세부한달살기’ 프로젝트도 운영 하신답니다.

수업관련 자세한 문의는 우성덕 집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세부JK어학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드. 카드에는 귀여운 곰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며,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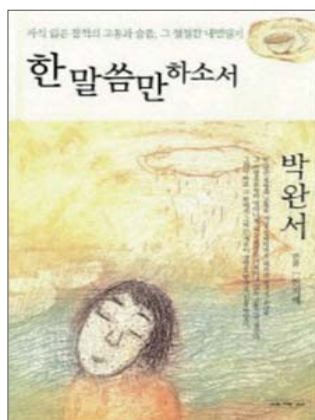
- 화상영어 + 비대면영어과외 5일 수업 5천원 진행!!
- JK잉글리쉬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Kakao ID english1045 를 친구추가해주세요!


 세부JK어학원 한달살기 & 화상영어 전문 13년의 노하우!! 카드. 카드에는 세 명의 여성 선생님이 나와 있으며,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JK어학원 한달살기 & 화상영어 전문 13년의 노하우!!
-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JK어학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 참척의 슬픔을 담은 일기를 읽고



1988년 9월 대한민국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 속에 한 마리의 용이 등장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단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이던 나라가 올림픽을 훌륭하게 개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심지어 19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로 훌쩍 컸다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종목별 금메달 따는 것에 날로 환호하고 기뻐하던 그 시기에 올림픽은 꼴도 보기 싫다며 은둔을 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책으로 160만쇄 이상 판매를 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2011년 소천하신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 여름, 그는 26살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기를 담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참척의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는 모성의 내면을 그대로 적어 놓은 일기장은 읽는 사람마저 마음이 먹먹해지게 합니다.

1988년 두 달 만에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후 참척의 슬픔을 이길 수 없어, 부산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도 거의 먹지 못하고 조금 먹어도 금세 토할 정도였고, 변비약과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순간들을 힘겹게 고백합니다. 연일 TV에서 떠드는 올림픽 소리의 홍청거림이 역겨워 홀로 있고 싶다는 열망으로 근처 수녀원에 들어가 손님 방에 머물게 됩니다.

비로소 홀로 있는 시간. 작가는 침대머리 높은 곳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방바닥을 헤매며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주님과 한판 맞붙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합니다.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데굴데굴 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의 작은 돌맹이가 되었다.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었고, 돌멩이처럼 무감각 해졌다. 그리고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지려고 기를 쓰듯이 한 말씀을 얻어내려고기를 썼다.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질 리 없듯이 한 말씀은 새벽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도 들려오지 않았다. 처절한 밤이었다. (66면)

참척의 슬픔을 온몸으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하던 작가에게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고통을 입에 올리며 자신의 행복을 더욱 맛있게 음미하고 대기하고 있을것 같은 망상에 망상이 꼬리를 물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에 돌아갈 일은 두려웠고, 천박한 인간 관계가 무서워 떨기도 했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식 문제를 고민하는 듯한 다른 중년 부인을 마음 속으로 아니꼬워 하기도 합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며 주님께 억울하다 항변 하다가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던 깔끔함,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나의 고통 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

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1931년 개풍(현재 북한 개성 땅) 출생인 박완서 작가는 딸 넷, 아들 하나를 둔, 살아계셨다면 올해 92세의 할머니입니다. 25년 6개월간 기쁨만을 주었던, 서울대 출신 의사인 총명하고 잘생긴 아들을 추모하며 ‘평생 인간과 의학과 연극을 사랑하다 간 젊고 아름다운 영혼 여기 잠들다’ 라는 묘비명을 직접 썼습니다.

몇 달 후, 연재를 멈추었던 『미망』도 다시 써 내려갔고, 작품은 훗날 채시라가 눈부시게 연기를 하는 드라마로도 제작됩니다. 마치 욕기의 한국 판을 읽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작가가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음을 감사해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착한 딸들과 사위, 손주들, 무엇보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좋은 추억의 도움이 있었음을. 어렵פות 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의 도움들도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참척의 슬픔을 빠져나오는 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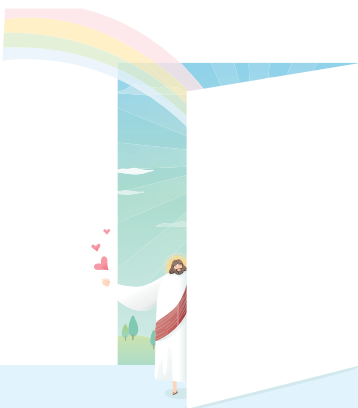


photo News

여리고성 돌기 마지막 주일 (21.9.26)



이안센터D아파트 입주민 영혼구원을 위한
여리고성 돌기 30일 침묵기도 상황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구원과 그대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참되고 그대하면 참이실 것이요
존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요 부르시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22:36)

교회 나무 전지 (21.10.2)



이안아파트 전도 (21.10.3)



남선교회 선교대회(금요성령집회)(21.10.15)



박성은 입교 (21.10.17)



가을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날 (21.10.23)



주차장 도색(안수집사회)(21.10.23)



북한선교 보고(김의종 목사)(21.10.29)



직원 선거 (21.11.7)



여성금식기도회 (21.11.18)



아름다운학교 종강 (21.11.30)



이창엽 목사 송별식 (21.12.5)



피택자 교육 1주(오리엔테이션) (21.12.19)



photo News

신명고등학교 성탄 설교 (21.12.24)



신암3동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21.12.24)



성탄 낮 예배 (21.12.25)



성탄 촛불새벽예배 (21.12.25)



크리스마스 예사의 집 (21.12.25)



성탄절, 유아세례식 (21.12.25)



직원 은퇴식 (21.12.26)



송구영신예배 (22.1.1)



만나복지위원 (22.1.7)



교직원 시무식 (22.1.8)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2.1.8)



제직세미나 총회 (22.1.9)



항존직 및 교인자녀 토요새벽기도회 (22.1.15)



2022년 2월~4월 행사 소개

교회 행사안내



- 2월 3일(목) 월삭기도회
 9일(수) 중보기도자 세미나
 13일(주일) 중보기도자 임명식
 19일(토) 구역지도자 1일 수련회(구역장교육)
 20일(주일) 교사대학(상), 정기당회
 23일(수) 3.1 일절 기념예배(4여)
 27일(주일) 동호회 모임

- 3월 1일(화) 월삭기도회
 2일(수) 권찰회 개강, 전도대 개강, 아름다운학교 개강
 2일(수) 사순절 시작. 사순절 새벽 신약성경통독회(4월 16일까지)
 4일(금) 총구역연합예배(전도간증집회)
 6일(주일) 제직회
 13일(주일) 남선교회협의회주관예배, 연합중보기도모임, 구역예배
 19일(토) 예사의 집 봉사
 20일(주일) 세례·입교자교육(1), 정기당회
 24일(목) 기도특공대산상기도회
 27일(주일) 세례·입교자교육(2) 동호회 모임

- 4월 1일(금) 월삭기도회
 3일(주일) 세례·입교자교육(3)
 9일(토) 교회 대청소(9일, 16일)
 10일(주일) 종려주일/고난주간 세례·입교자교육(4)
 연합중보기도 모임, 구역모임
 11일(월)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11일~16일)
 15일(금) 구역연합기도회
 16일(토) 세례·입교자 문답
 17일(주일) 부활주일, 예배 회복의 날(교구별 총 출석주일)
 세례식, 정기당회, 유아세례 부모교육
 22일(금) 피택자 헌신 예배
 24일(주일) 임직식(오후 3시), 동호회 모임, 유아세례 부모문답

※ 매주 토요일은 '항존직 및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새벽기도회'로 특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담임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예배후 담임목사님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간다 윤재승 · 조은숙 선교사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간다에서 소식 전합니다.

팬데믹이 없었다면, 원래 2021년 2월에 치뤘어야 할 우간다 모든민족 신학교(ANTS) 26회 졸업식은 지난 9월에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진행하면 좋았겠지만 정부가 언제 개학을 허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서, 결국 재학생 없이 20명의 졸업 예정자 중 10명만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치루었습니다.



그 후 정부가 상급학교의 개학을 허락하여 신학교는 지난 11월 재개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두 주간은 지난 학기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수업과 시험들을 마무리 하였고, 11월 셋째 주부터 2021/22학년도 1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Certificate(서티피킷) 과정은 신입생이 아무도 없었고 Diploma(디플로마) 과정은 7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과정은 30명 (Certificate 12명, Diploma 18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반 정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영어 과정 15명의 학생들은 12월말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예전에 매달 한 번씩 해왔던 마을 청소와 같은 대외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주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케만 선교회(KEMAN) 차원에서 세 번에 걸쳐 총 500여 가정에 이곳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4,000kg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도 하고 신학교 차원에서는 주일 예배 헌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성탄절을 맞이하여 학교 주변에 위치한 5개 교회 35가정에게 조그마한 선물들(쌀, 비누, 설탕, 소금)을 준비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직접 가정들을 방문하였는데, 교회의 추천을 받은 만큼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올라왔으나 거주할 집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주택에서 한 가족 8명이 생활하는 가정,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계속해서 이집 저집을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탄자니아인 가정 등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들어 기껏 학비를 지원해서 신학교 공부를 시켜주었더니 졸업 후에 목회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학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학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밤에 교실에서 자율 스터디 하는 모습

수업을 통해 신학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예배 설교나 그외 시간을 통해 이들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에 학생들이 10여분 정도 설교를 하게 하는데, 요즘 들어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주 그들의 설교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들의 부족을 지적해주어서 고맙다고 반응해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후

수업을 통해 신학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예배 설교나 그외 시간을 통해 이들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에 학생들이 10여분 정도 설교를 하게 하는데, 요즘 들어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주 그들의 설교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들의 부족을 지적해주어서 고맙다고 반응해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코로나 관련하여서는 우간다도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오랫동안 학교 대면 수업을 금지해 왔고,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학교가 대면수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기도 제 목 ●

1. 급변해가는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교를 지혜롭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2. 신학교를 통해 신학생들이 올바른 신앙관과 신학을 정립하고 이 땅의 교회들의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3.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사역하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우간다 브웨렐가에서
윤재승 · 조은숙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 퍼즐

1	2			5		6	
3			4				
						11	
7		8					
		9			12		
	10						

성경퍼즐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름 문자로 전송)

보내실곳 : 김종광 편집장
(010-2712-7223)

본문 : 창세기 1~12장, 마태복음 1~7장



가로 열쇠

- 창조, 타락,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 첫 번째 책의 이름
- 세례 요한이 회개의를 선포한 장소(창 3장)
- 믿음의 조상으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족장(창 12장)
- 셋의 아들의 이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창 4장)
- 인간들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쌓은 탑의 이름(창 11장)
- 아담의 아들로 형의 질투를 받아 죽게 된 사람(창 4장)
- 함의 아들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창 9장)

세로 열쇠

- 예수님의 12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마 4장)
- 가인의 후손으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창 4장)
- 최초의 인간으로 아내 하와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창 3장)
-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마 1장)
-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창 5장)
- 예수님의 조상으로 포로 귀환 때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마 1장)
-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된 나무(창 6장)

대구신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석 성도

12월



김정배 성도



22/1월



박춘강 성도



황윤욱 성도



이민희 성도



김민규 성도

첫 출석 아기



서 율 21년 7월 20일
아빠 : 서지웅 교우
엄마 : 구혜성 교우



이주안 21년 9월 30일
아빠 : 이규현 교우
엄마 : 윤소정 교우

교회학교

- 영 아 부 - 주일 오전 11시 / 나사렛실
- 유 치 부 - 주일 오전 11시 / 소예배실
- 아 동 부 - 주일 오전 11시 / 엠마오실
- 중 등 부 - 주일 오전 11시 / 미스바실
- 고 등 부 - 주일 오전 9시 / 미스바실
- 어 와 나 - 주일 오후 2시 / 엠마오실
- 사 랑 부 - 주일 오전 11시 / 베데스다실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새가족부실

DAEGU
SHIN AM

PRESBYTERIAN CHURCH



장년부

- 주일낮예배 1부 - 주일 오전 7시 30분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2부 - 주일 오전 9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3부 - 주일 오전 11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4부(청년마하나임) - 주일 오후 12시 50분 / 대예배실
-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 2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1부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2부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중예배실
- 금요성령집회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중예배실

신암평생교육원

- 대구아름다운학교 - 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오후 9시
성인 대상 / 국어(주, 야), 오카리나, 영어, 컴퓨터
- 신 암 실 버 대 학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만 65세 이상의 남녀 대상(종교와 학력 무관) / 건강, 교양상식, 신앙, 취미오락
- 행복한유니게학교 -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10분
생후 18개월~48개월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예배, 특별활동(동화구연, 미술치료, 뮤지컬 관람, 유아스포츠, 야외학습 등), 부모교육

우리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Our purpose is to know, worship and obey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발행 : 광송기 / 주간 : 김두리 / 편집장 : 김종광 / 편집위원 : 김정학 최진숙 허병기 김민주
41208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길 17(신암동)
<http://www.shinam.or.kr> ☎ 053) 955-7755